



주요 소식



화합과 열정의 한마당... 2026 'SB선보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결속과 상생, 화합의 뜻을 올린다

선보Family가 업무 현장의 열기를 함성으로 승화시키며 하나가 되었다. 4월 13일, 부산보건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2026 한마음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사내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가족까지 총 325명이 참석하여 '선보'라는 이름 아래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오전 9시 30분, 설레는 표정으로 집결한 참가자들은 행운의 경품권을 나누며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 세대를 아우르는 즐거움

최금식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본 행사는 준비운동에 이어 본격적인 단체 게임으로 열기를 더했다. 첫

경기인 '여왕 피구'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별 30명씩 참여해 여왕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이 오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어진 '풍선 탑 쌓기'에서는 전 조원이 협동하여 비닐봉지에 풍선을 채워 세우며 견고한 팀워크를 증명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돋보였다.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순서에서는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접은 비행기에 이름을 적어 날리며 동심의 나래를 펼쳤고, 이를 지켜보는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흐릿한 미소가 가시지 않았다.

소통으로 다진 열정, 내일을 향한 원동력

치어리더의 화려한 댄스 공연으로 열린 오후 세션은

한층 더 역동적이었다. 상대 팀의 판을 뒤집는 '색판 뒤집기'와 고도의 단합력이 요구되는 '100초 미션' 등 한 시도 눈을 땔 수 없는 경기가 이어졌다. 대미를 장식한 '미션 달리기'에서는 남녀 대표 선수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릴레이를 펼치며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는 기쁨의 환호와 아쉬움 섞인 웃음이 교차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협력사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들에게 일터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SB선보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선보Family

하나되는 SB선보! 한마음 체육대회 이모저모

뜨거운 함성과 결연한 의지, 그리고 선보Family의 환한 웃음꽃이 어우러져 눈부신 봄의 정점을 완성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하나가 되었던 '한마음 체육대회'의 열정적인 순간들을 만나보자.



“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회사소식

SB선보(주), 부산 조선업계와 손잡고 이중구조 해소를 넘어 ‘상생’의 길로**실질적 재원 출연으로 ‘선순환 구조’ 확립**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기반을 닦기 위해 부산 지역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SB선보는 4월 16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 조선산업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부산상공회의소가 힘을 보태고 지역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산형 상생일터 협의회’ 활동의 일환이다.

상생형 격차완화 협약식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구호에 그치는 상생이 아닌, 기업들이 직접 재원을 투입해 하위 협력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있다. 협의회에는 지역 앵커기업이자 1차 협력사인 SB선보(주)를 비롯해 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원청사인 HJ중공업도 힘을 보탤다. 이들 기업은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해 2·3차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과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터 안전까지… 현장이 체감하는 실무 지원 가능

격차완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현장 근로자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로 구성됐다. 인력 확보 및 정착, 숙련 기술 보호, 근로 환경 고도화를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재욱 SB선보 부사장은 협약식에서 “조선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성과가 아닌 공급망 전체의 건강함에서 결정된다”며,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고용과 안전, 복지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B선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사업과 연계한 ESG 기반 공급망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보터즈

동아대 개교 80주년 기념… ‘롯데자이언츠 DAY’ 초청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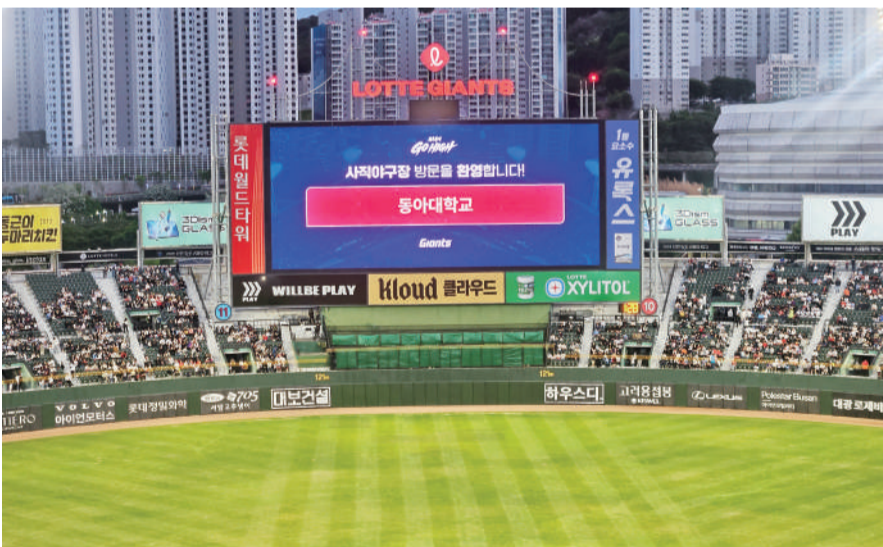
4월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이 SB선보 임직원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물들었다. 동아대학교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롯데자이언츠 DAY’ 행사에 선보Family 임직원 50명이 공식 초청되어 단체 관람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최금식 회장이 동아대학교로부터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으며 맺은 특별한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대학 측은 최 회장의 혁신적인 기업을 정신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공로를 기려 학위를 수여했다. 이러한 유대감이 이번 초청 관람으

로 이어져 산학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날 롯데 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는 9회 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펼쳐졌다. 선보 임직원들의 간절한 응원에 힘입어 롯데가 5대4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현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임직원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소통하고 활력을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얀 손가락에 끼여 있는 비취가락지다.”

회사소식 '펭선이'부터 '인턴로그'까지... 유튜브로 쏘아 올린 선보 소통

SB선보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SG소통팀은 단순한 기업 정보를 넘어, 대중이 궁금해하는 조선업 지식과 생생한 사내 문화를 흥미로운 콘텐츠로 풀어내고 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콘텐츠는 단연 쇼츠(Shorts) 코너인 <선보가 알려드립니다>이다.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선산업 관련 지식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특히 ESG소통팀은 SB선보 공식 마스코트 '펭선이'와 AI 영상 기술을 접목하여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실제 ESG소통팀 인턴들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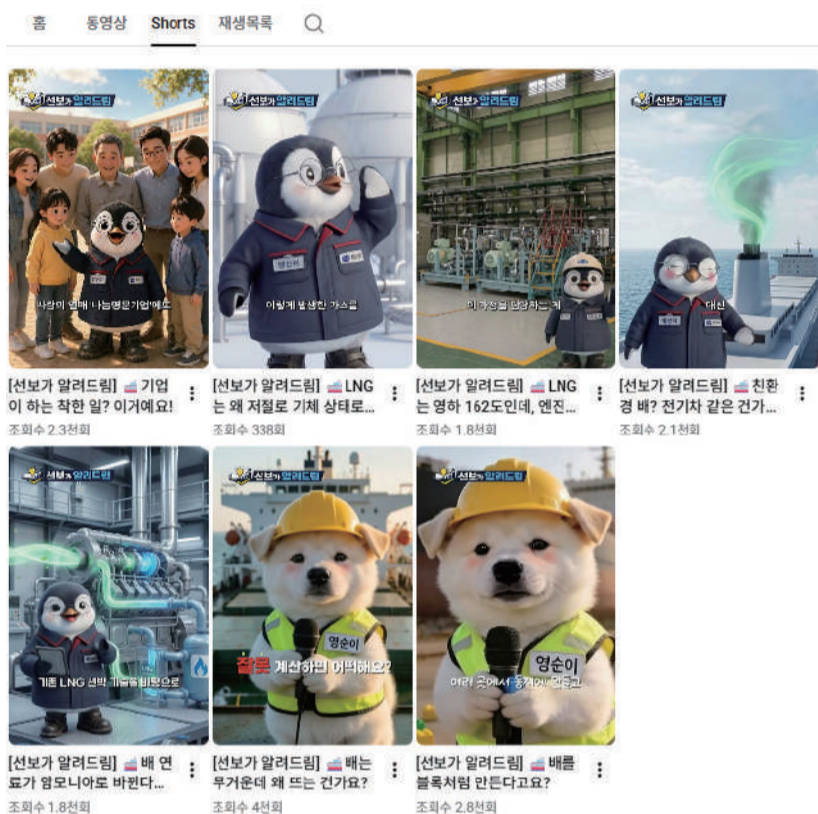
눈길을 끈다. '조선업 인턴 1주일 차가 하는 일' 등의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내며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ESG소통팀은 단순히 기업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콘텐츠 기획을 통해 구독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SB선보의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전문성과 선보인들의 열정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선업 인턴 1주일 차가 하는 일? | 꾸밈없는 인턴로그 ep.1 | SB선보
조회수 362회 · 10일 전

QR code and text: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SB선보'를 검색하면, 펭선의의 활약과 선보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어요!"



회사소식 영하 162°C 출신 펭귄 사원?! 선보의 마스코트 '펭선이'를 소개합니다!

출생의 비밀

펭선은 남극에서 온 펭귄이 아니다. 펭선은 LNG가 태어나는 온도, 영하 162°C에서 깨어난 존재다. 숨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그 극한의 순간, 차가운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작고 특별한 생명이 태어났다. 그 이름이 바로 펭선이다.

그래서 펭선은 차가운 곳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162°C를 극한이라 부르지만, 펭선에게 그 온도는 가장 익숙한 시작점이자 처음 태어난 자리, 그리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집이다.

기본정보

출신 SB선보 1호 FGSS 내부	체온 항상 -162°C
소속 SB선보	임무 친환경 해양 에너지 안내자
좋아하는 것 액화 공정 소리, 선박 엔진 진동	싫어하는 것 BOG 낭비(날려보내는 건 못 봐)

능력치 - RPG 스탭



특수능력 - 스킬

- 모르면 묻는다 (기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한다. 아는 척하지 않는다. 선보의 기술도 처음엔 누군가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 냉기 내성 MAX (패시브)**
시장이 얼어도, 프로젝트가 위기여도 체온은 항상 -162°C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다 (책임)**
복잡한 문제일수록 차갑게, 천천히, 끝까지 생각한다. 최선은 서두르지 않는다.
- 핵심가치 채널 (고객·기술·상생·책임)**
LNG가 에너지 품듯, 펭선은 선보의 4대 핵심가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체다.

칼럼

중동 오일 머니 캐시 트랩에 걸린 이란... Do-Or-Die(이판사판)! 그 선택은?

중동발 캐시 트랩과 OPEC의 붕괴 위기

최근 들어 세계 신용 사이클상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속속 오일 머니 캐시 트랩에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캐시 트랩이란 흑자에도 현금이 부족해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테크니컬 디폴트 상황을 말한다. 전쟁 발생 직후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시작한 지난 3월 OPEC 회원국의 원유 수출 물량은 예상보다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원유 수출 항구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전쟁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대체 항로를 마련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도 30% 이상 감소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 위기가 겪었던 서든스톱에 비유될 만큼 외화난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국가는 UAE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외화 사정이 악화된 UAE는 미국 국채를 매각해 보존해 오다가 미국에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요청했다.

자금 수요국으로의 전략과 지정학적 구도 변화

작년 한국의 사례에서 입증됐듯이 Fed는 중심 통화로서 달러화 위상을 지키기 위해 5대 기축통화국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기축 통화국과는 외부 충격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만 한시적으로 체결한다. Fed가 주저하는 사이 외화난이 가중되자 UAE는 5월 1일부로 OPEC을 전격 탈퇴했다. 조만간 이라크, 쿠웨이트마저 탈퇴하면 OPEC은 붕괴 일보 직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후 보루격인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외화가 부족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해 온 '비전 2030'마저 중단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확산 중이다.

1960년 9월 창설 이후 세계 신용 사이클상 자금 잉여국 역할을 해왔던 OPEC 회원국이 자금 수요국으로 전략하면 중동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마저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외화난에 시달리는 OPEC 회원국이 급한 김에 중국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



한상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겸 국제금융 대기자

이란의 경제 파국과 5차 중동 전쟁 가능성

전쟁 당사자인 이란은 사정이 더 안 좋다. 서방의 경제제재로 리알화 가치가 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폭락했고, 이란 국민조차 자국의 법정화폐를 공중에서 뿌릴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고정환율제 도입 등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약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역대 최저치인 -10% 내외로 추락한 반면,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사상 최고치인 67%로 급등했다. 이란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고통지수는 2010년 아랍의 봄 당시 리비아 국민보다 높다.

과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란의 혁명수비대(IRGC)가 'Do-Or-Die' 전략의 일환으로 5차 중동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재 중동 정세는 1973년 4차 중동 전쟁 당시와 달리 초승달 벨트(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요르단·예멘 그리고 러시아)가 느슨해진 상황이다. 이란 정부도 전임 정부와 달리 실리외교를 표방하고 있어 5차 중동 전쟁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IRGC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의 '인민 동원군', 예멘의 '반군'을 지원해 중동 지역 내 헤게모니를 꿈꾸는 음모를 갖고 있고, 이란 정부도 IRGC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갈라파고스 함정과 양국의 Do-Or-Die 상황

트럼프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와 해방 프로젝트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 급감해 핵협정 파기로 악화될 경우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뒤 차단됐던 중동의 최대 시장인 이란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다. 중동 국가 가운데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이란 시장이 다시 닫히면서 세계 경제에는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트럼프 정부도 'Do-Or-Die' 상황에 몰리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목줄(leash line)이라 일컫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가 넘어선 지 오래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30년물 국채금리가 각각 3%, 5%를 넘자 증시에서는 '5.3 괴물(monster)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이란과 미국 모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쟁은 마무리되어야 한다.

선보 챗봇

북극항로는 왜 주목받고 있을까요?

북극항로 뉴스에서는 "거리 단축", "물류 혁신"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아무 배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까요?

북극을 통과하면 거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북극항로(NSR)는 아시아와 유럽을 북극을 통해 연결하는 항로입니다. 기존 항로 대비 운항 거리를 약 30~40%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운항 시간 감소, 연료 절감, 운임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거리'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북극항로가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꺼운 해빙(얼음), 영하 수심 도의 극저온,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이 환경에서는 일반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빙해 대응 선박'이 필요합니다

북극항로의 첫 번째 조건, '빙해선(ice-class vessel)'이 필요합니다. 이 선박은 선체 강도가 훨씬 높고 극저온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해 일반 선박보다 훨씬 높은 설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은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북극 환경에서는 연료 공급 시스템, 배관 및 압력 제어, 기계 장치. 이 모든 것이 극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핵심은 "끝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입니다.

LNG 선박도 북극항로를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단, 빙해 대응 설계가 적용된 Ice-class LNG선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북극 지역에서는 이러한 선박을 활용한 LNG 운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보는 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선보는 LNG 연료 공급 및 재기화 시스템을 설계부터 제작, 시운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EPCC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극저온 유체를 다루는 기술, 안정적인 연료 공급 시스템 설계, 실제 운전까지 연결되는 실행력. 이러한 역량은 북극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선보는 연료공급·가스처리·기계 패키지를 모듈 단위로 제작해 납품함으로써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품질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선보Family

나눔 더하기 행복 나누기! '가정의 달' 맞이 스페셜 당근마켓 성료

선보Family의 대표적인 나눔 활동인 '당근마켓'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더욱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눔의 기쁨과 참여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했다.

올해 당근마켓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온라인 댓글 경매를 통해 뜨거운 낙찰 경쟁이 펼쳐졌으며, 연휴를 앞둔 30일 물품 전달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최금식 회장이 기부한 공기청정기, 와인 오프너, 다기 세트 등 품격 있는 물품들과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장난감 및 놀이 세트가 대거 마련되어 선보Family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SB선보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즐겁게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파할 계획이다.



가전 및 디지털 기기	공기청정기, 무선충전기, 멀티포트, 전동와인 오프너, 솜사탕 메이커, 차량용 청소기, USB 스피커, 아쿠아픽, 온열 베개 마사지기 등	유아 및 완구	미니자동차 장난감 세트, 핑크퐁 한글버스, 유아 버블 클렌저, 공순이 주방놀이 등
생활 및 주방 용품	타올, 우산, 전통수저세트, 컵 세트, 다기 세트, 손세정기, 텀블러, 샴푸·섬유유연제·바디스크럽 세트, 치약세트, 링클케어 세트, 스프레이 바디로션, 마스크팩 등	식품 및 건강	소금 세트, 홍삼포, 저분자 콜라겐, 스팸 세트, 위스키, 계란찜기 등
유아 및 완구	뽀로로 계산대 놀이 세트, 뽀로로 놀이완구, 고양이 키캡 키보드, 영유아 자석블럭 세트,	의류 및 잡화	골프모자, 캡모자 등
		레저 및 가구/서비스	호텔 숙박권, 복싱 글러브 등



복지

가족친화선도기업 SB선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우리의 약속

SB선보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되며 상생의 기업 문화를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조성한 기업에 부여하는 제도다. SB선보는 모든 임

직원이 일터와 가정에서 동시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선보Family라면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할 주요 복지 제도를 다시 한번 소개한다.

소중한 생명 탄생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임신부터 출산 시까지 1일 1시간 범위 내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정 시간 외에도 사업주 재량으로 확대 운영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 시술 성공으로 출산 시에는 100만원의 축하금을 별도 지급	[출산 축하금]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출산시 1,000만원의 축하금 지급
--	--	--

튼튼한 성장의 배팀목을 위한 자녀 양육·교육 지원

[장애자녀 수당 지원] 장애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기당 100만원의 학자금 지원	[자녀 입학 축하금] 초등학교 50만원, 중학교 100만원, 고등학교 150만원, 대학/대학교 300만원 (대학 미진학 시 100만원 지급)
--	--	--

선보Family

0.01초의 진검승부, 함께해서 즐거운 ‘한마음대회’

동료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며 결속력을 다지는 선보Family만의 소통 장치, ‘한마음 대회’가 올해도 활기차게 열렸다.

4월 29일 오후 12시 30분, 다대 1공장 옥상 스마트라운지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쾌한 한마음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종목은 오직 감각만으로 정해진 시간을 맞추는 ‘스톱워치 시간 맞추기’ 게임이었다. 규칙은 간단했다. 스톱워치를 보지 않고 숫자를 가능해 버튼을 누른 뒤, 목표 시간과의 오차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 승부가 갈리는 만큼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동료들의 응원과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마음대회는 부서와 직급을 넘어 모두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선보만의 고유한 행사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에너지를 충전한 이번 한마음대회는 선보Family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상식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할까?

-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실제 시간의 기묘한 차이

우리는 흔히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물리학의 세계에서 시간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른다고 한다. 이론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정밀한 과학 장비로 입증된 실제 현상이다.

하늘 위 시간은 더 느리게 간다?

대표적인 예가 비행기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의 시계는 지상보다 아주 미세하게 느리게 간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정밀한 장비로 측정하면 분명한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항공기나 위성에 탑재된 시계는 이런 시간 차이를 보정 해주지 않으면 오차가 생긴다. 우리가 사용하는 GPS 역시 이 보정이 반영된 기술이다. 이처럼 ‘물리적인 시간조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또

한 번 다르게 흐른다. 즐거운 순간에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지루한 순간에는 길게 느껴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은 물리적으로도, 체감적으로도 동일하지 않다.

한마음대회 타이머 게임에 담긴 비밀

한마음대회에서 진행된 타이머 게임 역시 이 점을 떠올리게 한다. 같은 10초를 맞추는 단순한 게임이었지만,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시간은 분명 같은 속도로 흘렀지만, 각자가 느낀 시간은 모두 달랐다.

결국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같은 하루라도 누군가에게는 짧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게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아침특강 성과는 '인정'에서 피어난다... 4월 아침특강 진행

조직의 성과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4월 29일 SB 선보 본사 대교육장에서 아침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정설이 강사의 '감사를 통한 신뢰 기반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 강사는 조직이 흔들리는 본질적인 이유로 '신뢰 부족'을 꼽았다. 신뢰가 무너진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침묵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서로 돕지 않는 단절 현상이 나타나 결국 성과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감사'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가장 빠른 피드백이며, 심리적 안전감을 형성해 활발한 협업을 이끌어내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날 강연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효과 있는 감사의 기술'이다. 단순히 "수고했다"는 말

은 구체적인 행동 기준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상황-행동-영향"으로 이어지는 3단 구조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오늘 발표 좋았어요" 대신 "이슈 발생 즉시 공유해줘서(행동) 일정 리스크를 초기에 제거할 수 있었어요(영향)"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에 미친 긍정적 결과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성과를 높이는 감사의 4원칙으로 ▲즉시성(상황 발생 직후) ▲구체성(관찰 가능한 행동 중심) ▲연결성(팀의 목표와 연계) ▲일관성(공정한 적용)을 제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통 기술을 익혔다.

SB선보는 앞으로도 구성원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아침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보로그 미래를 그리는 전략의 첫걸음, 선보에 녹아드는 하루 - 미래전략팀 박준성 선임

우리 부서는 미래전략팀으로, 사업본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SUNSHINE2027 전체 조율, 중진공 JUMP-UP(도약프로그램), 신사업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현황 파악, 사업기획 및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회사 전체적인 업무와 부서별 역할과 업무, SUNSHINE2027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SB선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전일과



08:00

오늘은 아침 특강 '감사를 통한 신뢰 기반 조직문화 구축'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동료 간 상호존중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하며 효과는 무엇이고, 실제로 주변 동료들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훈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업무는 현재 중진공에서 진행 중인 JUMP-UP 프로그램 전략디렉터 미팅을 스마트라운지 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업 운영방식, 전략 및 기술 서포터 활용방안, KPI 설정방향 및 후속 ACTION ITEM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0:00



오후일과



12:00

오늘의 점심 메뉴는 삼겹살 구이가 나왔습니다. 든든하게 한 끼를 먹고 남은 점심시간에는 오후 일과를 힘내기 위해 자리로 와서 쪽잠을 자거나 소화를 위해 미래전략팀원분들과 산책을 종종 합니다.



14:00

5월 6일자로 입사한 지 딱 1개월이 됐습니다. 아직은 배울 것이 많은 신입사원이기에 업무 및 회사 시스템 중 모르는 것이 아직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25년도 매출자료 및 비용자료를 활용하여 전략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7:00

팀 내 선배이신 이한진 책임과 주 2회 회사의 부서별 역할 및 주력 아이템에 대해 함께 스테디하고 있습니다. 스테디를 통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화·목요일은 저녁 식사를 하고 가볍게 소화 겸 옥상에서 턱걸이 및 덤스를 합니다. 운동 후 영어가 부족하다고 느껴 나머지 30분에서 1시간가량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보봉사단

선보 봉사단, '온기 가득' 배식 봉사 진행

선보 봉사단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행보를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 4월 14일, 봉사단은 부산 사하구 물운대 복지관을 방문하여 정기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에 소중한 온기를 전했다.

이번 활동에는 박두선 부회장과 손진석 전무를 비롯해 최치욱 책임, 최우호 수석, 김정석 책임, 이노경 선임, 김자영 선임, 장봉수 선임, 박성우 사원, 이주원 인턴 등 총 10명의 단원이 참여하여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도 현장에 모인 단원들은 능숙하게 식사 준비와 배식에 나섰으며,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정성 어린 식사와 함께 다정한 안부를 건넸다.

단원들은 배식 활동에 그치지 않고, 주방 설거지와 식당 내부 정돈 등 뒷정리까지 원스

톱으로 마무리하며 복지관 운영에 실질적인 힘을 보탤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김자영 선임과 이주원 인턴이 새롭게 합류하여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김자영 선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께 한 끼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주원 인턴 또한 “어르신들을 도와 한 끼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새로운 구성원들의 열정과 기존 단원들의 숙련된 협동심이 어우러진 활동으로 선보 봉사단.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선보 플리

막힌 속은 땡! 지친 맘은 토닥토닥... 우리들의 '음악 처방전'

때로는 백 마디 말보다 한 곡의 노래가 더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선보Family의 일상을 지탱해 주는 소중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세요.

▶ 이 곡을 최애 플리로 뽑은 이유는? ▶ 선보가족에게 한마디

예술이야 사이(PSY)



이한진 책임 미래전략팀

- ▶ 아침 출근길마다 매일 챙겨 듣는 저만의 '출근송'입니다. 졸린 눈으로 나서도 이 노래 한 곡이면 텐션이 확 올라가서,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신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출근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 이 노래 한 번 틀어보세요. 예술입니다!



파이팅 해야지 (Feat. 이영지)

부석순 (SEVENTEEN)



양수원 선임 총무팀

- ▶ 순간순간 지치거나 하이텐션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곡입니다. 파이팅 넘치는 리듬과 가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고, "파이팅"이라는 직관적인 응원이 힘과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느낌이라 자주 듣게 됩니다.
- ▶ 지치는 순간이 와도, 파이팅 해야지! 우리 같이 힘냅시다!



Love poem 아이유(IU)



노진철 수석 시운전팀

- ▶ 외롭고 고독한 세상에서 끝까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믿어주는 엄마 같은 마음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유난히 긴 밤을 걷는 이들에게 조용히 부르는 노래처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집니다.
- ▶ 긴 하루의 끝, 이 노래와 함께 잠시 쉬어가세요. 당신의 걸음 늘 응원이 있습니다.



사회공헌

“청끝기업, 선보를 가다!” 부산 청년잡 성장 프로젝트 기업탐방 성료

부산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향토 기업을 알리는 ‘부산 청년잡 성장 프로젝트’가 4월 24일 진행되었다. 기업탐방은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팀과 부산 지역 취업준비생 40명이 참석하여 ‘청끝(청년이 끝리는) 기업’으로 선정된 SB선보의 주요 생산 현장과 기업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기업탐방은 SB선보의 핵심 생산 거점인 구평공장과 다대2공장 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탐방단은 조선·해양 모듈 유닛 제작 공

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본사를 방문한 청년들은 기업 소개 및 채용 안내 세션을 통해 선보가 추구하는 비전과 인재상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공유받았다.

SB선보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사회공헌

한림중학교 진로체험학습 성료... 선재장학재단 후원 앞장서

한림중학교 학생들이 선재장학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진로체험학습에는 1학년 재학생 55명 전원이 참여하여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식견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진로체험학습의 장은 한림중학교 17회 졸업생인 선재장학재단 최상식 이사장의 각별한 후배 사랑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선재장학재단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소요 경비를 부담하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다. 2박3일 일정 동안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장 및 체험관, KBS 방송국,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주요 기관들을 방문했다. 또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아 역사를 되새기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적 소양을 쌓는 등 인문과 기술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선재장학재단은 지난 3월 한림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 진로체험 지원까지 펼치며 지역 꿈나무들이 우수한 교육 혜택 속에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학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EVENT 결과

‘유퀴즈 온 더 사보!’ 이벤트
당첨자 발표

<SUNBO NEWS> 4월호 ‘유퀴즈 온 더 사보!’ 이벤트에 66명의 선보Family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첨 진행
총무팀 이주원 인턴
재무인사팀 장한솔 인턴

1등 치킨교환권 : 재무인사팀 신수빈 사원

2등 햄버거세트 교환권 : 플랜트품질팀 박성환 선임, 전계장개발팀 백현 사원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 설계2팀 최치욱 책임, 설계1팀 이우석 책임, 품질경영1팀 한지혜 사원, 전계장개발팀 강신우 선임, 설계5팀 김동영 사원

EVENT

‘핑크이’가 알려주는 생생 조선업 지식 퀴즈!

주관식

귀여운 얼굴에 스마트함까지 겸비한 핑크이가 SB선보 유튜브 채널 <선보가 알려드립니다>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핑크이의 설명을 듣고 아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주세요.

LNG는 가만히 두면 왜 계속 줄어들까요? LNG는 영하 162도의 액체라서 외부 열이 조금만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기체로 변해요! 이렇게 발생한 가스를 ○○○라고 하죠! ○○○은 엔진 연료로 사용하거나 다시 액체로 만들어 저장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HINT



답: ○○○ / ☆☆☆☆

부서:

성명: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성명 및 직책	소속	입사일
다대1공장	최재호 책임	WAPS 생산기술팀	2001.05.02.(25주년)
	민병철 책임	시운전팀	2001.05.22.(25주년)

• 총괄 편집 이세영 수석, 이수지 선임, 김채안 인턴, 이예진 인턴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 총무, 행사, HSE 김수환 선임, 배상준 선임
• 제작 미디어줌 (Tel. 051. 623. 1906)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다대1공장 김청옥(5.3) 최재호(5.10) 김정식(5.20)
이세영(5.3) 박노원(5.13) 김동길(5.27)
정동민(5.7) 허현(5.13) 임현섭(5.27)
박문염(5.8) 심성섭(5.16) 김강식(5.28)
권두철(5.10) 박종현(5.17) 임준택(5.28)
윤영운(5.10) 오예린(5.19)
이창석(5.10) 장국천(5.19)

다대2공장 김현진(5.9) 이진우(5.10) 김종성(5.16)
이동주(5.9) 정성훈(5.12) 김진수(5.21)
최예원(5.9) 성재경(5.14) 남남석(5.23)

구평공장 B.아이벡(5.2) 임우택(5.8) 서찬호(5.19)
후 왕(5.2) 조 훈(5.10) 김주환(5.25)
반 탕(5.6) 강수문(5.13) 산(5.30)
S.아딜렛(5.7) 서만휘(5.16)

대불공장 백철웅(5.1) 장오열(5.12) 조승현(5.27)
김명진(5.6) 오재근(5.15) 수렌드라(5.30)
최재혁(5.7) 박용석(5.22)
김지훈(5.11) 인드라제(5.27)

김해공장 김부근(5.2) 이은하(5.13) 송동채(5.24)
아리프(5.8) 정남철(5.15) 안창후(5.25)

영암공장 티완카(5.3) 부티카(5.12) 김대영(5.18)
박누리(5.11) 김효희(5.17) 이용태(5.25)

입사기념일

다대1공장 최재호(5.2) 장지훈(5.14) 비엣 부(5.21)
문재경(5.9) 정현교(5.14) 탄 루안(5.21)
양승현(5.12) 박문염(5.16) 민병철(5.22)
박기덕(5.14) 오예린(5.17) 정동민(5.27)

다대2공장 박상계(5.1) 강동훈(5.9) 딘 상(5.21)
김종성(5.2) 박성환(5.9) 반 하이(5.21)

구평공장 이창주(5.1) 응우엔더팜(5.2) 정뚜안(5.19)
조상연(5.1) 반 특(5.8) 에케테라(5.26)
홍춘관(5.1) 웨 리(5.14)
루옹더빈(5.2) 이준희(5.14)

대불공장 김득진(5.2) 천영철(5.2) 나라안(5.15)
박기태(5.2) 뉴이스(5.7) 수렌드라(5.15)
박재현(5.2) 고 팔(5.15)

김해공장 신상철(5.1) 마빈(5.20) 린(5.25)
박상민(5.19)

영암공장 김상도(5.1) 키란(5.15) 산지위(5.23)
구마라(5.11) 리무두(5.22)